



### 손영란

아호비령과 잇달은 아아한 계곡을 끼고돌며 굽이 굽이 뻗어간 도로를 따라 오르고오르느라면 광산에 들어서게 된다.

청색지붕을 산뜻하게 씌운 청사들이 보인다. 또한 이곳에는 공무직장이 있어 웅웅거리는 선반기의 동음과 단야장의 광광대는 소리가 조화를 이루며 광부들의 전투열기를 북돋아주려는듯 기운차게 울린다.

바로 이 모든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양지쪽 산중턱에 《차광수청년돌격대》라는 글발이 새겨진 붉은 기발이 펄펄 날리며 힘차게 나뭇길다. 그 기발밑에 아담하게 꾸러진 그리 크지 않은 돌격대병실이 있다.

바람에 필릭이는 기폭소리가 마치 피끓는 청년들의 부름소리인양 가슴을 쿵쿵 울려준다.

저 붉은기에 심장의 피줄기를 잇기 위해 35명의 청년들이 땀뻑뻑 못했던 지난날의 생활과 결별하고 이곳으로 달려왔다. 과연 그들은 어떤 청년들이었던가.

### 1

차광수청년돌격대 대장인 김동철은 원래 찬찬하면서도 세부적인데가 있는 다정다감한 청년이었다.

조개턱에 어울리게 매끈한 얼굴은 여자처럼 곱살한감을 주었고 호수처럼 맑은 눈동자는 그의 깊은 속마음과 솔직성을 엿보게 하였다. 그는 어느 한 사범대학의 예능학부를 나와서인지 음악을 몹시도 좋아했다. 이러한 그가 어떻게 되어 돌격대대장으로까지 될수 있었는지.

주체104(2015)년 5월 어느날이었다.

푸른 옷을 떨쳐입은 산과 들에 울긋불긋 꽃송이

들이 앞다투어 피어나 아름다움을 마음껏 뽐내는 5월의 봄풍경은 사람들에게 열정과 즐거운 생활의 정서와 랑만을 안겨주었다.

누구나가 다 조국해방 70돐과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뜻깊게 맞이하려는 시대의 진군에 발을 맞출 때 동철은 창문도 열어놓지 않은 방안에 홀로 들어앉아 지나간 자신의 생활을 저주하며 끝없이 갈마드는 심연의 나락속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똑똑똑... 문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모든것이 귀찮아진 동철은 깍지팔베개를 하고 벌렁 드러누운채 뚫어지게 천정만 보며 대답할념을 안했다.

누구인지 계속 문을 두드렸다.

《에익.》 그만에야 동철은 벌떡 일어났다.

《누구요?》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물으며 문을 열어제끼자 햇빛이 쏟아져들어오는 속에 한 청년의 모습이 보였다. 그를 알아본 순간 동철은 그만 굳어져버렸다.

광산청년동맹위원회 위원장(당시)인 김성철이 빙긋이 웃으며 서있었던것이다.

《동철동무, 있었구만. 들어가도 되겠소?》

성철의 물음에 정신이 필쩍 든 동철은 그제야 황급히 그를 방안으로 안내했다.

성철의 눈빛은 반짝였다. 방안에 들어선 그는 덤석 동철의 손을 잡고 자기의 잘못부터 빌었다.

《동철동무, 이제야 찾아온 날 용서해주오. 난 요즘처럼 자기 사업의 빈구석을 느끼며 이렇게 죄책감에 잠겨보기는 처음이요.》

동철은 성철의 갑작스러운 태도에 한동안 얼떨떨해있었다.

《동철동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청년들을 고

상한 정신과 미풍을 지닌 시대의 선구자들로 키워낸 당조직들과 청년동맹조직들에 감사문을 보내주시었소. 그런데 난… 동무를 이렇게 두고… 나야말로 일군의 자격이 없단 말이요.»

이날 김성철은 많은 이야기를 하였다.

무엇보다도 뒤떨어진 청년들을 묶어세우는 문제를 놓고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누었다.

그는 동철에게 우리 광산에서도 지난날 길을 잘못 걸던 청년들을 교양하여 돌격대를 조직하려고 하는데 대장사업을 해보지 않겠는가고 물었다.

나와 같은 사람들로 돌격대를 조직한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었지만 동철은 이내 도리머리를 저었다.

《전 아직 그런 일까진… 자신이 없습니다.》

성철은 말없이 동철을 지켜보고있다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라는 말을 남기고는 집을 나섰다.

점심참이 다 되어서야 김윤경이 무엇인가 싸들고 들어왔다. 결혼한지 얼마 안되어 등글고 복스럽던 윤경의 얼굴은 꺼칠해졌고 몸은 더 체소해보였다. 그런 안해를 볼 때마다 몇몇치 못한 자기를 만나 마음고생만 시키는것 같아 죄스러운감을 금할수 없는 동철이었다.

지금도 어느 한 예술공연때 동철의 손풍금반주에 맞추어 윤경이 꼬팔새같은 목소리로 노래를 잘 불러 관중들의 박수갈채를 받던 일이 눈에 선하다.

여느때갈지 않게 살뜰히 일어나 맞아주는 남편이 참 이상하다는듯 까만 눈을 반짝이며 의아히 바라보던 윤경의 눈가에 웃음꽃이 피어났다.

《이게 뭔지 알아요?》

윤경은 손에 든 꾸러미를 쳐들었다. 그러나 동철의 얼굴에는 심중한 표정이 떠돌았다.

《방금전에 광산청년동맹위원장등지가 왔댔소. 이 신문을 놓고갔는데 날보고 돌격대를 무어보라는거요.》

《예?! 그게 정말이에요?》

윤경은 신문을 펼쳐들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감사문을 자자구 읽어보는 그의 눈가에 맑은 눈물방울이 맺혀있다.

오늘 우리 시대 청년들은 가는 곳마다에서 그 얼마나 아름다운 미풍의 소유자가 되어 자랑떨치고 있는것인가.

어쩐지 그 대오에 자신이 서있지 못하는것이 한스러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아시는 청년, 이것은 윤경이 처녀시절부터 간직했던 꿈이었다.

윤경의 아버지 김광수는 90년대초에 진행된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제8차대회에 대표로 참가하는 영광을 지녔었다.

뿐만아니라 그후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혁명의 해불봉을 넘겨주시던 그날의 감격을 전해주고 위훈의 창조자로 이름을 날리고싶었던 윤경이었다.

동철의 일로 하여 생긴 죄의식을 마음 한구석에

몰어두고 살며 언제든지 그가 일을 잘하기를 크게 기대했었다. 그런데…

윤경은 더 생각할 여지도 없다는듯 절절히 말하였다.

《여보, 위원장동지말대로 지난날 길을 잘못 들었던 청년들과 함께 돌격대를 무어요. 파오를 깨끗이 씻고 사회앞에 떳떳이 나설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있겠어요. 당신의 물을 먹은 청년들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들을 당신이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진단 말이에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청년들이 해놓은 자그마한 일도 크게 보시고 기뻐하시는데 우리 광산에서도 돌격대가 생겨 일을 잘한다는 보고를 받으시면 얼마나… 여보, 전 그날이 오길 바래요.》

윤경의 말은 동철의 가슴을 세차게 흔들어놓았다.

아, 나라에서는 얼마나 많은 품을 들여 나를 키워던가.

경력과 학력을 따지면 그 누구에게도 짝지 않을 동철이었다.

그렇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온 나라가 청년들로 하여 들끓고있는 이때 나도 시대의 한복판에 뛰어들자. 청년미풍선구자들처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아시는 청년전위가 되자.

숫구치는 강렬한 충동은 그를 더 앞아있을수 없게 했다.

방금 사가지고온 남편이 좋아하는 만두밥을 그릇에 담던 윤경은 움쭉 일어서는 동철을 정겨운 눈길로 바라보며 물었다.

《언제 오시겠어요?》

《저녁쯤 아니, 좀 늦어질것 같소.》

동철은 그날 집에 들어오지 못했다.

윤경은 일단 불이 달리면 무섭게 타번지는 동철의 성미를 잘 알고있는지라 마음이 가볍게 한밤을 지새웠다.

집을 나선 동철이 제일먼저 찾아간 사람은 쌍방울로 불리우던 광혁이었다.

지난날 동철이 사회적물의를 일으키며 돌아갈때 광혁은 그의 그림자가 되어 늘 방울소리를 함께 울리곤 했다. 사람들은 그들을 욕할 때마다 저 쌍방울이 문제라고 수군거렸다. 그 방울소리가 이제는 울리지 않았으나 그들의 사이는 여전히 가까웠다.

손전화기를 꺼내든 동철은 광혁을 찾았다. 인차 《예, 전화받습니다.》 하는 소리가 들렸다.

《광혁이, 이제 좀 만나자구. 지금 어데 있니?》

광혁은 문화회관앞에서 기다리겠다고 했다. 광혁의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유쾌해졌다.

자전거를 타고 문화회관앞마당에 이르니 광혁이 반색하며 마주 다가왔다.

《무슨 일이야? 요즘 새 공연을 준비하느라 널 보기도 힘들다.》

동철과 달리 서글서글한 광혁은 크고 둥글넓적한 얼굴에 동무를 만난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몹시 반가와하였다.

아마도 이들의 사이는 똑같이 음악에 취미를 둔 것으로 하여 더 가까운지도 모른다. 씻을수 없는 파오로 무대를 내렸던 광혁이 당의 믿음속에 다시 무대생활을 하게 되었다.

기동예술선동대복장을 멋들어지게 차려입고 의젓하게 서있는 광혁을 새삼스러운 눈으로 보다가 싱긋 웃으며 말했다.

《네 차림새가 정말 보기 좋은데.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보이는게 어려워 말도 못 꺼내겠는걸.》

《차 이런, 자꾸 놀리지 말구 빨리 말이나 해.》

광혁은 갑자기 불쑥 나타난 동철이 이상한듯 눈을 껌벅거리며 몹시 안달이 나하는 표정이었다.

동철은 광혁에게 열정적으로 청년동맹위원장이 찾아왔던 일이며 돌격대를 맺는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야, 그거 정말 해볼만 하겠다. 난 찬성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 들끓는 시기에 노래나 부르자니 내 참.》

광혁은 당장이라도 돌격대에 나갈 자세였다. 그러는 그를 붙잡기라도 하려는듯 호출번호가 왔다. 동철의 귀에도 광혁의 손전화기에서 울려나오는 맑은 목소리가 푹푹히 들렸다.

《광혁동무, 연습이 시작됐어요. 동문 정말 자유주의가 심하군요. 빨리 오세요.》

《이렇다니까. 알겠소, 내 인차 가겠소.》

광혁은 몹시 난처한 기색을 짓고 동철에게 눈길을 돌렸다.

《이거 참 미안한데. 함께 움직이면 좋으려만.》

《미안하게 있니. 난 그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려주려고 왔됐어. 자, 그럼… 후에 소식을 알려주지.》

광혁이와 헤어지자니 마음이 허전했으나 동철은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다. 광혁이와 헤어진 동철은 그길로 광산청년동맹위원회를 찾아갔다. 마침 김성철이 혼자 방에 있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서는 동철을 반갑게 맞이한 김성철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렇게 울줄 알았소. 그렇지 않아도 돌격대 문제를 토의하려던 참이었소. 그래 결심이 섰소?》

믿음과 기대가 한껏 어린 그의 목소리는 펄 부드러웠다.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철은 자기가 너무도 쉽게 대답한다고 생각했으나 그 결심은 이미 굳어져있었다.

《고맙소. 동철동무, 뒤떨어진 청년들이 우리 시대의 청년답게 자기 본분을 다해가도록 우리 힘을 합쳐 힘껏 도와줍시다. 왜 우리 광산 청년들이라고 항상 뒤자리만 차지하겠소.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어려차례 다녀가신 령도의 자욱이 어려있는 영광의 땅에 태를 묻고자란 우리들이 아니요. 동철동무, 난 믿소. 우리 함께 잘해보지요.》

가슴한가득 크고 소중한것이 자리잡으며 동철의 어깨를 무겁게 했다. 그러나 뿌듯이 차오르는 격정은 마음속 한구석에서 잠을 자던 청춘의 활력을 깨웠다. 온몸에 산이라도 떠옮길 힘이 뻗었다.

방을 나선 그의 머리우에는 맑은 하늘이 펼쳐져있었다. 그의 마음은 푸른 하늘로 훨훨 나래쳐갔다.

동철은 무슨 일이든 하고싶었다.

그래, 정선이를 찾아가자. 금남이, 운성이 그리고 일국이도… 나처럼 주저앉아 뜻을 잃고 갈팡질팡하던 그들에게 희망의 나래를 달아주자.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이렇게 동무들을 찾아떠난 길이었지만 모든 일이 생각처럼 척척 풀려나간것은 아니었다.

누구누구는 이러저러한 가정사정으로 선뜻 용단을 내리지 못하고 주저했으며 어떤 부모들은 모든것은 동철이 너때문에 망쳐먹은 일이니 이제는 상관하지 말라고 딱 잘랐다.

동철은 동무들의 구실에도, 부모들의 쌀쌀한 랭대에도 물러설수 없었다.

그렇다. 모든것이 내 잘못이다. 그러니 내가 책임져야 한다. 그들의 랭대는 웅당한것이다.

동철은 그들을 위해 수많은 밤길을 걷고걸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속에 안겨사는 우리 청년들속에서는 단 한명이라도 그릇된 길을 걷던 지난날을 되풀이하게 할수 없었다. 그리하여 아는 청년이든 모르는 청년이든 그가 누구이든 새 출발을 해야 할 청년이라면 설새없이 문을 두드려가며 낮과 밤이 따로없이 찾아다니었다.

그는 진정으로 말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수 없지 않는가, 당의 사랑을 똑같이 받으며 자란 우리들인데 영웅이 되어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지는 못할망정 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한생을 살겠는가, 이제라도 사회주의강국건설에 뛰어들어 자기의 잘못을 씻고 먼 후날에도 후회없는 사람이 되자고… 가슴을 울려주는 동철의 뜨겁고 열정적인 호소앞에 생활경로가 서로 다른 각양각색의 청년들이 돌격대원이 될것을 약속하였다.

광산청년동맹위원회에서도 여러명의 청년들을 동철이에게 보내었다.

질 좋은 토양에는 노력을 들인것만큼 풍성한 열매를 거둔다.

요즘 동철은 하루를 열흘맛잡이로 뛰여다니느라 몹시 바빴지만 얼마나 즐거운지 몰랐다. 비로소 자기도 보람을 느끼며 사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하루하루가 귀중했다.

동철은 다시는 이 소중한 생활을 잃지 않으리라 마음속 다짐을 하였다.

많은 청년들이 돌격대에 입대하기로 했다는 소식은 광산당비서(당시)인 원준호를 기쁘게 했다.

청년동맹위원회가 책임지고 지난날 잘못 살아온 청년들로 돌격대를 무어보라고 적극 떠밀어주고 지지해주던 때가 엇그제같은데 벌써 돌격대를 조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확실히 청년들은 민감하고 의욕이 강하다.

생각할수록 경애하는 원수님의 청년중시사상의 정당성을 느끼게 했다.

돌격대원들의 명단을 보고 또 보는 당비서의 생각은 깊어졌다.

자기들의 지난날과 결별하고 새 길에 들어서는 이들에게 과연 무엇부터 심어줄 것인가.

조용히 문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몇몇의 일꾼들이 들어섰다. 방금전 돌격대조직과 관련하여 찾은 사람들이었다. 이들속에는 동철이도 있었다.

《거기들 앉소.》

당비서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구리빛 얼굴에 너그러운 웃음을 짓고 동철에게 다심히 물었다.

《그새 힘들었지? 수고가 많았소. 여기 앞에 나와앉소.》

동철은 주뭇거리며 앞으로 나와앉았다. 땀뭇치 못한 자기를 내세우려는 그 마음이 헤아려졌다.

《동무들!》

낮으나 저력있는 음성이 방안을 울리었다.

《지금 30명의 청년들이 돌격대원이 되려고 하오. 자기들의 결함을 고치고 시대의 선구자가 되려는 그들의 갈망은 매우 절절하오.

우리는 이들에게 무엇을 심어주어야 하는가. 우리 잘 생각해봅시다.

오늘 모이자고 한것은 돌격대병실문제때문입니다. 안들이 있으면 이야기하십시오.》

서로 눈치를 보며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아 방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점점 무거워지는 침묵을 당비서가 깨쳤다.

《후방부지배인동무, 무슨 좋은 안이 없소?》

풍채좋은 후방부지배인이 어줍게 웃으며 엉거주춤 일어났다.

《저... 아무래도 이 문젠 비서동무가...》

《좋습니다.》 하며 자리에서 일어난 당비서는 자기를 쳐다보는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다 아시는것처럼 우리 광산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자욱이 어려있는 뜻깊은 곳입니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불분하기 그지없는 이곳에서 하루밤 묵어가시면서 우리 광산을 지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난 돌격대병실을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드시었던 사적건물과 가까운 둔덕진 공지에 건설할것을 제기합니다.우리 돌격대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자욱을 언제나 가슴에 안고 살게 말입니다.》

모두가 그날의 감격에 가슴을 들먹이였다.

《그게 좋겠습니다.》

모두의 마음을 담은 진심어린 목소리였다.

동철이도 가슴이 뿌듯해지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당비서가 동철이에게 물었다.

《동철동무, 어떤 일을 맡겼으면 좋겠소?》

동철의 가슴은 보답의 일념으로 불타올랐다.

《제일 어렵고 힘든 일을 맡겨주십시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다녀가신 이 땅에 우리도 충정의 자욱을 남기고 싶습니다.》

동철의 기운찬 대답은 모두를 감동시켰다. 달리는 나올수 없는 대답이였다.

우리는 저들이 먼 후날에도 땀뭇이 오늘을 추억할수 있게 떠밀어주어야 한다. 자기 힘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떠메고나갈수 있는 시대의 주인공으로 키워야 한다. 하여 가는 곳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원대한 구상을 실천으로 받아들여가며 영웅신화를 창조하는 우리 청년들의 대오속에 저들도 당당히 들어서게 해야 한다.

당비서는 머리를 끄덕이고나서 동철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었다.

《비서동지, 병실을 우리가 건설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살 집인데 우리 손으로 짓고 싶습니다.》

확고한 결심이 어린 동철의 눈빛을 보며 당비서는 그를 힘껏 포옹해주고싶었다. 그의 심정이 기록하기 그지없었던것이다.

《그래, 그래. 동무들 요구대로 합시다.》

이날 당비서는 돌격대원들의 제복문제로부터 시작하여 그들이 리용할 문화오락기재들과 침구류, 식사문제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조직사업을 해놓고야 모임을 끝마쳤다.

잎새들을 활짝 펼친 8월의 산파 들은 더욱더 푸르고 무성해졌다. 대지도 왕성한 여름의 기운으로 청춘을 맞은듯싶었다.

사리원시 상매산언덕에 높이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찾은 차광수청년돌격대원들은 자랑찬 청년전위의 대오속에 자기들을 내세워준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해같은 사랑과 믿음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보답의 한마음을 담아 삼가 인사를 올리고 불타는 맹세를 다졌다.

도당책임비서(당시)를 비롯한 일꾼들이 참가한 속에 차광수청년돌격대선포모임이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앞에서 차광수청년돌격대기발을 수여받은 돌격대원들의 가슴은 한없이 숭엄한 감정에 휩싸여있었다. 우리 당 기발따라 펄펄 휘날려갈 기발이였다.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우리 당따라 가리라, 숨이 진대도 한길만을 걸으리라 굳은 맹세를 다지고다지며 동철은 연단에 뛰어나가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열렬히 터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우리 차광수청년동격대원들은 항일혁명투사들의 붉은 피가 스민 혁명의 붉은 기폭에 심장의 피줄기를 잇고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바쳐 지켜싸운 차광수동지의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을 본받아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회주의강국건설구상을 더 많은 쇠돌생산으로 받들어어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만리창공에 뿌려져도 언제 어디서나 태양만을 따르는 충정의 별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다지는 맹세의 목소리가 멀리 평양의 하늘가로 쩌렁쩌렁 울려갔다.

병실이 완공될 때까지 전투적으로 야외천막을 가설하고 거기에 보금자리를 편 돌격대원들은 첫 전투임무를 받았다. 갱복구전투였다.

500미터정도 내려가야 하는 이 갱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침수되었었다.

돌격대원들은 뿔프로 물을 퍼올렸고 버럭들로 막혀버린 막장에서 버럭들을 한광차한광차 실어냈다. 돌처럼 굳어진 바닥을 뜯어내고 레루를 살려내는 그들의 모습은 불사조와도 같았다. 갱복구전투는 그야말로 그들의 의지의 시험장이기도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돌격대원들중에서 그중 나이 어린 철진이 울상이 되어 주저앉으며 말하였다.

《우리가 이 갱을 꽤 복구해낼가요? 오늘날도 수십번이나 버럭을 실어내었는데 이렇게 자리가 나지 않으니...》

《차 이 친구, 석공이 돌기둥을 갈아 바늘을 만들었던 말 못 들었어? 자, 어서 밀라구.》

2소대장 윤성이 이러며 광차를 밀었다. 그러기를 그 몇번, 이제 몇탕만 더하면 하루계획을 수행하게 되는데 광차가 레루에서 탈선되었었다. 그만에야 돌격대원들은 털썩털썩 주저앉으며 맥빠진 소리들을 했다.

《이거 정말 힘이 드는구나.》

《차라리 굴진이나 팡팡 해대는게 더 낫겠다.》

《이거야 아무리 해도 일자리가 나지 않으니 누가 우릴 평가해주지도 않을거야.》

손뎛을 놓고 앉은 대원들을 바라보는 동철의 눈빛은 어두웠다. 한순간 동요의 빛이 번쩍였다.

이들 말대로 작업과제를 바꾸는것이 어떨가. 아니, 내가 무슨 생각을.

동철은 나약해지려는 마음을 다잡았다.

순간이라도 이런 생각을 하다니... 이것은 변절이다.

저도 모르게 소스라쳐놀란 동철은 대원들을 향해 말했다. 그것은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였다.

《동무들, 지금 온 광산이 우리를 지켜보고있소. 우리가 난관앞에 주저앉아 오늘계획을 못한다

면 우리의 맹세는 헛된것으로 되며 우리의 삶은 빛을 잃게 되오.

그때 우리가 경애하는 원수님께 맹세를 다질 때 순탄한 길을 걸으며 혈한 일만 골라하자고 생각했소? 우린 버럭을 한광차 담아도 자기의 량심을 담아야 하오. 누가 알아주건말건 우리가 다진 맹세를 지킵시다.》

대원들이 하나들...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막장에는 동철이 선창을 댄 《적기가》의 노래소리가 울려 퍼졌다.

무릎까지 잠기는 물속에서 버럭을 담아올릴 때마다 누린 감탕물이 줄줄 흘러 온몸을 적셨지만 그들은 작업시간을 연장해가며 전투를 벌리었다. 드디어 하루계획을 수행하고 막장에서 나올 때는 별들도 총총히 빛을 뿌리는 깊은 밤이었다.

돌격대식당에서는 광산의 책임일군이 푸짐한 식탁을 차려놓고 그들을 기다리고있었다.

#### 4

돌격대원들은 작업이 끝나면 병실건설에 달라붙었다.

제일 걸린 문제는 세멘트였다. 세멘트공장에 가니 며칠만 기다리라는것이였다.

동철은 맥이 빠졌다.

두석달후면 추위가 닥치겠는데... 그는 병실건설은 하루도 지체할수 없다고 생각했다.

세멘트하차장에 깔린 세멘트가 어쩔지 눈뿌리를 뿜아 밟걸음을 땔수가 없었다.

이윽고 동철은 한삼두삼 세멘트를 쓸어모으기 시작했다. 그를 지켜보고있던 공장일군이 다가왔다. 동철이로부터 모든 사연을 들은 그 일군은 몹시 감동되었는지 공장보수에 쓰려고 남겨두었던 얼마간의 세멘트를 내놓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대장동무, 이것밖에 도와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오. 이제 동무네 차레가 되면 내 쪽...》

동철은 황급히 그의 손을 잡았다.

《아닙니다. 지금 나라의 중요대상건설장들에서 수많이 요구되는것이 세멘트인데 우리까지 어떻게... 저희들은 어떻게 하나 자체로 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동철은 동무들과 친척들의 집에 조금씩 가지고있던 세멘트를 모았다. 모두가 어이없어했지만 티끌모아 큰 산이라고 많은 세멘트가 마련되었다.

며칠후 광산당위원회에서 많은 량의 세멘트를 해결해주었다. 돌격대를 돕는 사업이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되자 온 광산이 떨쳐나섰다. 청년동맹원들은 물론 녀맹원들까지 돌격대를 도왔다. 모두의 관심속에 돌격대병실은 나날이 완공되어갔다.

동철은 낮과 밤이 따로없이 울리뛰고 내리뛰고하느라 이제는 집에 못 가본지도 까마득했다. 윤경이가 그리웠다. 서너시간밖에 안되는 잠시간도 물려

오는 피곤에 눈을 감았다드면 어느새 지나가버렸다. 이따금 광혁이 집소식을 가져오곤 했는데 그것은 동철에게 있어서 유일한 기쁨이었다.

그러던 어느날 광혁이 배낭을 메고 커다란 가방을 든채로 돌격대병실에 나타났다. 여느때와 다른 그의 요란한 차림에 동철은 눈이 둥그레졌다.

광혁은 가지고온 짐들을 내려놓기가 바쁘게 동철을 안고 빙그르 돌더니 기쁨에 넘친 얼굴로 이야기했다.

《내 오늘에야 돌격대입대를 승인받았소. 당위원장 회를 찾아가 떼를 썼지.》

《왜 저의 돌격대입대를 승인해주지 않습니까. 청년돌격대운동을 적극 벌리는것은 당의 뜻이고 그 뜻대로 사는것이 우리 청년들의 지향인데 제 요구를 들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고 들이댔더니 《이 동무 막 걸고늘어지누만.》 하면서 당비서동지가 일군들을 둘러보더니 생각깊은 어조로 《우리 이 동무의 돌격대입대를 승인해줍시다.》 라고 하는것이 아니겠나. 그저 우리 당비서동지가 제일이야.》

당위원회까지 찾아가 억지부림을 한 광혁의 처사가 어이없긴 했지만 동철은 기쁘기 그지없었다. 그와 손잡고 돌격대일을 제낄것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가벼웠다.

한참 기쁨에 넘쳐 돌아가던 광혁이 《아차!》 하며 이마를 치더니 가방에서 보약꾸레미를 내놓았다.

《대장동무, 윤경동무가 이걸 전해달라고... 참, 해산예정일이 다 됐는지 병원에 갈 차비를 하더구만. 한번 시간을 내서 집에 가보오.》

안해에 대한 애뜻한 그리움이 찾아들며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가고싶은 생각이 불쑥 치밀어올랐다. 그러나 동철은 어깨를 무겁게 누르는 책임감으로 하여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윤경이 보내온 보약꾸레미를 형우에게 밀어놓았다. 남보다 허약한 형우의 병세가 점점 악화되었던것이다.

《마침이요, 형우동무에게 보약을 한번 써보았으면 했었는데.》

《전 일없습니다. 그 약이야 대장동지에게 보낸 건데...》

《무슨 소릴 하는거요? 두말 말고 그대로 하오.》

동철은 짐짓 성난 기색을 보이며 보약꾸레미를 형우의 가슴에 안겨주었다.

형우는 그만 눈물이 글썽해졌다.

이날 저녁 소대장들과 자리를 같이한 동철은 모자라는 레루문제를 토의하였다.

1소대장 영만이 꼬머리를 앓고있는 동철에게 넌 지시 한마디 했다.

《대장동무, 광산에 제기합시다. 레루까지야 어떻게 우리가...》

동철의 쓰는듯 한 눈빛앞에 영만은 그만 말끝을 얼버무렸다.

《영만동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일할

바에야 구태여 돌격대라고 할게 있소? 어떻게 하든 모든걸 우리 힘으로 해봅시다.》

다음날 동철은 레루때문에 여기저기 움직이다니 휴식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밤이 꺾 깊어 지친 다리를 끌고 겨우 들어서는 동철을 맞이하는 돌격대원들의 눈빛에는 그늘이 비껴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소?》

동철의 물음에 광혁이 기여드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일국리와 용준이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지다니? 그건 무슨 말이요?》

동철은 심장이 똑 멎는것만 같았다.

《일이 힘드니 달아난것 같습니다.》

《뭐요?》

억이 막혔다. 돌격대기발을 든지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도망병이 생긴단 말인가.

눈앞이 캄캄해졌다.

동철은 도주한 돌격대원들이 야속하기 그지없었다.

동철이 부모구실을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였던가. 더우기 용준이로 말하면 그 누구보다 동철의 관심속에서 생활한 대원이었다.

어릴적부터 어머니와 둘이 살면서 집안의 가장노릇을 해온 용준이었다. 그래서 동철은 있는것보다 없는것이 더 많은 그에게 윤경의 따뜻한 마음이 어린 새 모내의도 서슴없이 꺼내주었던것이다.

《내가 네 형이 되어주마.》

동철의 진심에 용준은 눈물을 흘렸다. 그러던 그가 아무 말도 없이 가버리다니... 결국 대원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이 부족하다고 동철은 생각하였다.

동철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대원들이 식사라도 하고 가라고 막아섰다. 허나 밥을 먹을 마음의 여유가 없는 동철이었다.

동철은 급급한 마음을 앞세우며 용준의 집부터 찾아갔다.

마당의 구석구석만 보아도 주인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것이 알렸다. 한참 불러서야 병색이 짙은 어머니가 나오더니 동철을 보며 몹시 반가와하였다.

《우리 집엘 다 어떻게...》

용준이가 집에 오지 않은것이 명백했다. 그렇다고 찾아온 사연을 말할수도 없었다.

동철은 웃으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용준동무가 어머니걱정을 하며 집에 한번 들려달라고 하길래... 그럼 전 가겠습니다.》

용준동문 일을 잘하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안녕히 계십시오.》

대문밖까지 따라나오는 용준의 어머니와 헤어진 동철은 일국의 집으로 향하였다.

일국의 부모들은 돌격대생활이 힘들어 못하겠다는 일국의 말을 듣고 그런 고생을 시킬수 없다고 막아나섰다.

동철은 설복하고 또 설복했다.

《그게 무슨 고생이겠습니까. 오히려 부모님들의

눈먼사랑이 일국동무를 비겁하게 만들어 구렁텅이에 빠지게 합니다. 일국동무보다 나이가 더 어린 대원들도 다 이겨내는데 어찌 일국동무라고 이겨내지 못하겠습니까. 일국동무는 꼭 이겨낼겁니다. 그러니 같이 가게 해주십시오.»

동철의 안타까운 이야기에 일국이 머리를 떨군 채 나왔다. 동철은 그에게 준절히 말하였다.

《일국동무, 생각해보오. 돌격대선포모임을 가지던 그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앞에서 우리 맹세를 다지지 않았소. 그때 동무도 자기를 품어안아준 당의 은정이 고마와 눈물을 흘리지 않았는가. 그런데 자그마한 난관앞에 겁을 먹고 물러서다니.»

일국은 얼굴을 들수 없었다.

《제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일국을 데리고나선 동철은 용준이의 행처를 찾아해매다 날이 밝아서야 돌아왔다.

5

아직까지 용준의 소식은 알길이 없었다. 누이네 집에도, 친한 동무네 집에도 가보았으나 그를 찾을 길이 없었다.

동철은 입술이 빠작빠작 타들다못해 갈라터졌다.

어느날 동철은 얼마간의 식량과 약품을 마련하여 광혁이에게 주면서 용준이네 집에 갔다오라고 하였다. 며칠전에 만났을 때 용준이 어머니의 병세가 어쩐지 심상치 않아보였던것이다.

그날 저녁 광혁은 용준이는 데려오지 못하고 난데없는 소식을 가져왔다.

윤경이 아들을 낳았다는것이였다.

광혁의 말에 동철의 얼굴은 삶은 가재마냥 빨갱게 익어버렸다. 그 모양이 재미있는듯 광혁은 한번 더 시까슬렀다.

《아들을 보았으니 이젠 나갈은건 안중에도 없겠는걸. 눈에 보이는건 아들뿐이라 불쌍해진건 나 하나뿐이지. 자, 어쩔든 생남을 축하하오.»

동철은 소리없는 웃음을 지었다. 그의 눈앞에는 온통 윤경의 모습뿐이였다.

불만 한번없이 모든것을 묵묵히 바쳐온 윤경이. 정말로 고맙고 사랑스러운 안해였다.

동철은 이날 밤 꿈을 꾸었다.

온갖 꽃이 만발한 들판에서 윤경을 만나 아들을 하늘높이 안아올리며 기뻐하는 자기의 모습이였다. 윤경이와 함께 그리도 기뻐하는데 갑자기 떡장구름이 밀려오더니 무섭게 벼락이 치고 비줄기가 쏟아져내렸다.

와플 놀란 동철은 눈을 떴다. 깊은 밤이였다.

자리에서 일어난 동철은 비어있는 용준이의 자리를 보자 마음이 허전해졌다.

용준이는 지금 어데 있을까. 집에는 왜 나타나지 않는가. 과연 그를 돌격대명단에서 제명해야 한단 말인가.

착잡한 생각에 마음이 답답해진 동철은 밖으로 나왔다. 마가을의 서늘한 바람이 달아오른 그의 몸을 식혀주었다.

이밤도 잠들지 않고 더 많은 광물생산을 위해 들끓고있는 광산의 전투현장들이 한눈에 안겨왔다.

광산의 벽찬 숲결이 느껴지자 절로 머리가 숙여졌다. 요즘 마음속에 차오르는 불안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깨달았다.

용준이에 대한 자기의 믿음이 부족하다는것을 새삼스럽게 느꼈다. 동철은 용준이를 꼭 찾아데려오리라 결심했다.

그의 발걸음은 어느덧 새로 지은 돌격대병실로 향해졌다. 며칠후면 이사를 하게 된다.

새벽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동철은 돌격대원들이 기상할 때가 되었음을 느끼자 돌격대천막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6

아침부터 돌격대원들은 새집들이로 흥성거렸다. 병실앞에 높이 띄운 돌격대기발은 기세 좋게 나뵈었다. 광산의 책임일꾼들이 다 왔다간듯싶은 이날은 돌격대원들에게 있어서 제일 기쁜 날중의 하나라고 해야 할것이다.

새집들이가 끝나자 문득 광혁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동무들에게 한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또 하나의 기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대장동무가 귀여운 아들을 보았다는것입니다.»

그러자 와— 하며 돌격대원들이 일어나 박수를 치며 동철을 축하해주었다.

돌격대일로 하여 아직까지 비밀로 붙이고 집에 가보지 못한 자기들의 대장을 바라보며 돌격대원들은 젖어드는 마음에 눈들을 습벅거렸다.

안해에게 다녀오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렸다. 동철은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날밤 동철은 동무들이 들려주는 꾸레미를 듣고 윤경을 찾아갔다.

몇해를 헤여졌다 만난듯 윤경은 동철을 보자 어린애처럼 기뻐하며 눈물을 앞세웠다. 웃으며 눈물을 흘리는 윤경의 모습은 몹시 축갔어도 여전히 아름다웠다. 그옆에서 췌근췌근 잠을 자고있는 아들의 모습이 참으로 귀엽게 안겨왔다.

윤경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광산의 책임일꾼들이 다 왔됐어요. 제가 몸조리를 잘해야 당신이 일을 잘한다더군요. 정말 고마웠어요. 그러니... 모두의 기대를 잊지 마시고 일을 더 잘해주세요.

됐어요. 이젠 어서 돌아가세요.»

불뚱치를 안은듯 가슴이 달아올랐다. 동철은 윤경의 두손을 꼭 쥐었다.

행복의 미소를 짓는 윤경을 백날이고 천날이고 이렇게 곁에 앉아 따듯이 애무해주고싶었다. 이윽

고 동철은 젖어드는 목소리로 소곤거렸다.

《윤경이, 고맙소. 내 쪽… 윤경이를… 제일 행복하게 해줄테요.》

뜨거운 정이 넘쳐나는 행복의 밤은 소리없이 깊어가고있었다.

년말을 앞두고 돌격대원들의 전투적열의는 더욱 높았다. 몇달전까지만 해도 버럭에 묻히고 물에 잠겼던 갱이 번듯하게 자기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해놓은 일이 클수록 보람도 컸다.

돌격대원들은 기세충천하여 돌격하였다. 교대가 따로 없었다.

동철은 막장에서 살다싶이하며 앞장에서 대원들을 이끌었다.

그러던 어느날 동철은 윤경이 사경에 처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윤경이 위급하다니… 며칠전만 해도 생글거리며 웃던 윤경이가 아니었던가.

믿을수 없었다. 비칠거리며 몇걸음 옮기던 동철은 그제야 생각난듯 목이 짹 잠겨 말했다.

《동무들… 미안하오. 내 인차… 갔다오겠소.》

눈앞이 흐려지며 잘 보이지 않았다.

가슴아픈 소식에 무겁게 눌려있던 막장에서 타는 듯 한 돌격대원들의 목소리가 울렸다.

《대장동지, 함께 갑시다.》

《저희들도 가겠습니다. 빼면 빼, 피면 피를 다 바쳐서라도 윤경동무를 살려내겠습니다.》

그들이 광산인민병원에 이르렀을 때 윤경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그의 곁에는 광산의 책임일꾼들이 지켜서있었다.

의사들은 최선을 다하고있었다.

이윽고 한방울 두방울 윤경의 몸으로 돌격대원들의 더운 피가 흘러들어갔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돌격대원들의 지성이 닿은듯 정신을 차린 윤경은 동철을 알아보자 웃음을 지으며 입속말로 힘겹게 입을 열었다.

《당신이… 맡겨진 일을 다 하길… 손뎀아… 기다렸어요. 매일밤…》

《됐소, 말하지 마오. 난 당신의 심정을… 다 아오.》

동철은 눈물을 썩으며 윤경의 손을 꼭 잡았다.

《여보… 어서… 가보세요. 어서요.》

윤경의 눈가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동철은 그 눈물을 씻어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가겠소. 내 이제… 가겠소.》

동철은 이렇게 윤경의 곁을 떠나 막장으로 왔다. 그는 윤경의 뒤편까지 합쳐 일을 하고 또 하였다. 그것이 윤경이를 위한 아니, 윤경이가 바라는것이라고 생각했다.

동철의 모진 마음속 생각을 다 알고있는 돌격대원들은 교대가 따로없이 일을 하고 또 하였다.

그렇게 하루가 지났다.

새벽부터 막장에서 버럭을 실어나르던 동철은 자기에게로 몰려오는 대원들을 보며 그 자리에 굳어

져버렸다.

《무슨 일ियो? 왜들 다 들어왔소?》

의아한 눈빛으로 누구에게라없이 물었으나 누구도 대답이 없었다. 이그러진 그들의 얼굴마다에서, 눈물이 고여 번뜩이는 눈가에서 동철은 모든것을 알아차렸다.

(그러니… 그러니… 끝내…)

《대장동무!》

광혁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동철의 가슴팍을 두드렸다.

《이 일을 어쩌면 좋소. 어제밤 윤경동무가… 흑— 꼭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러달라는 부탁을 남기고 그만… 대장동무.》

광혁의 말에 돌격대원들은 가슴을 치며 흐느꼈다.

《무정하구만, 윤경이. 자기 몸에 뜨거운 피를 넣어준 우리 돌격대원들의 그 마음도 저버리고 어쩌면 그렇게 야속하게 간단 말ियो.》

터져나오는 이 말을 동철은 혀를 깨물어 삼키며 광혁을 와락 끌어안았다.

모진 마음속 아픔이 태질하며 온몸으로 퍼져갔다. 윤경이를 마지막까지 지켜주지 못했다는 뼈아픈 자책감이 심장을 허비었다.

하지만 윤경이의 마지막부탁, 그것은 동철이뿐만 아니라 돌격대원들의 가슴속에 피로써 새겨졌던것이다. 그리하여 동철은 슬픔에만 잠겨있을수가 없었다. 자기를 이겨내지 못한다면 모두의 가슴속에서 흐르는 눈물은 몇배로 더해져 양양되었던 기세는 꺾일것이고 그것은 그대로 년말전투에 지장을 줄것이었다.

동철은 더 지체할수가 없었다.

## 7

용준은 지난 시기 가깝게 지내던 동무들의 집을 찾아다녀봤으나 모두가 년말전투를 한다며 바빠 움직이고있었다. 용준은 그들이 부러웠다. 그럴수록 자기의 처지가 불쌍하게 느껴졌다.

여러날이 지나 할수없이 집에 들어서니 어머니는 옥부러 했다.

대장이 보내준 약을 먹고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것이며 자기를 찾아 밤을 지새운 일들과 안해를 잃고도 또다시 전투를 벌였다는 소식은 용준을 죄의식속에 몰아넣었다.

돌격대를 떠나보니 자기가 얼마나 값없는 인간인가를 절실히 깨달은 용준은 그 어떤 비판도, 가혹한 처벌도 달게 받을 각오를 하고 집을 나섰다.

돌격대원들과 함께 방금 갱에서 나오던 동철은 머뭇거리며 서있는 용준을 보자 기뻐서 어쩔줄 몰라했다.

《이제야 왔구나. 기다렸다, 이렇게 울줄 기다렸단 말이야.》

예나 다름없이 반겨주며 기뻐하는 동철을 보는



순간 용준은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야말았다.

《대장동지, 제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돌격대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 너나 나나 이 돌격대를 떠나면 어디로 가겠니.》

《대장동지!》

용준은 동철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그를 안은 동철의 눈가에도 눈물이 고여 반짝이었다.

낮에 밤을 이어 총정의 전투를 벌인 돌격대원들의 불굴의 정신은 기적을 낳아 년말전투는 승리적으로 결속되었다.

당앞에 맹세한대로 갱복구를 끝내고 광석생산으로 진입한 돌격대원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듯 하였다.

우리도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떳떳한 성원이 되었다는 긍지와 보람이 커갈수록 지난날 시대박에 밀려나 얼굴도 들지 못하고살던 자기들을 빛나는 삶의 언덕에 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과 그리움이 가슴에 차고넘쳤다.

누구도 돌아보지 않던 자기들을 사랑의 넓은 품에 안아 희망의 나라를 달아주시고 마음속 그늘까지 깨끗이 가셔주시며 진주보석처럼 빛내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아, 우리는 그 품밖에 모릅니다. 하늘처럼 믿고 삽니다.

돌격대원들의 두볼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비록 걸어온 길은 갈래가 있었어도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오직 한길, 당을 따라 곧바로였다.

그날 저녁 광산문화회관에서는 돌격대원들을 위한 축하무대가 마련되었다.

무대에 오른 돌격대원들은 자기들의 불타는 결

의를 담은 노래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를 불렀다.

모두가 따라불렀다. 지배인도 당비서도.

며칠후 돌격대원들은 새해를 맞이하였다.

하늘에서는 하얀 눈송이가 내리고있었다. 돌격대원들은 저 멀리 평양의 하늘가를 우러르며 그리움의 목소리를 터쳤다.

《대장동지, 지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어디에 계실가요?》

《아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 아침에도 초소를 찾아, 공장과 농장을 찾아 높고 험한 령을 넘으시며 이 눈을 맞고계실거요.》

그러자 애어린 처녀돌격대원인 여성이가 또 물었다.

《대장동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광산에도 오실가요?》

《오시지 않구. 꼭 오실거요.》

동철은 진정어린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동무들! 우리 영광의 그날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합시다.》

《알았습니다.》

열정에 넘친 그들의 목소리는 저 멀리 산너머로 메아리쳐갔다.

복구된 갱에서 첫 발파소리가 울렸다.

광산의 어렵고 힘든 곳마다에서 차광수청년돌격대의 기발이 날렸다.

진정 우리 청년들은 파사로운 태양의 품이 있어 영원한 진주보석으로 빛을 뿌리게 되었다.

진주보석!

이제 우리 조국은 이 땅의 수많은 진주보석들에 의해 위대한 청년강국의 그 위용을 온 세상에 더욱 높이 떨치게 될것이다.